

청년 일자리·청년주택 늘려 기회 넘치는 충남 만든다

(꿈비채)

충남 청년 비전 선포

2030년까지 66개 사업 2.1조 투입
MZ세대 마음 잡는 청년 비전 올인

주거

충남꿈비채 추가 공급 주거 안정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자부담 금리 0.5%→0.3% 완화

일자리

창업·기술개발 실현 공모사업
팀별 최대 3000만 원 지원
2235명 맞춤형 일자리 제공

교육, 복지·문화

충남도립대 무상교육 실현
취업준비 지원에 연 30만 원

충남도는 지난해 공급한 청년·신혼부부 주택인 충남 꿈비채 1000가구에 이어 4000가구를 4년 안에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꿈비채’ 아파트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돋기 위한 충남의 저출산 극복 주택 공급 사업이다. 입주 후 첫 아이가 태어나면 임대료의 50%를, 2명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 100% 지원한다. 주거 공간도 타 지역 공공임대주택이 36㎡미만인데 비해 꿈비채는 36~59㎡로 넓다. 월 임대료는

15만원으로 타 지역의 40% 수준으로 낮다.

충남도는 청년주택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대출한도는 최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자부담 금리는 0.5%에서 0.3%로 낮췄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기술 개발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청년팀 별(3명 이상)로 최대 3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첫 공모를

시작한다.

도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235명의 청년에게 맞춤형 지역 일자리도 제공한다. 기존

57개 사업과 신규사업 38개 등 총 95개 사업이다. 이 중 충남 특화기업 일자리 청년매칭 사업 등 20개 사업은 참여 사업장 및 청년 824명을 선정해 2년 동안 월 200만 원(기업부담 10~20%)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3년 차에 취업·창업 정착하는 청년에게는 추가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

급된다.

도는 올부터 전국 공립대 최초 충남 도립대의 완전 무상교육도 시행해 전학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청년 희망카드 사업을 추진해 23~25세 청년들에게 연 30만 원씩, 구직 준비와 문화 활동, 건강관리 비용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청년 직업훈련 온라인 콘텐츠 오픈마켓, 정신건강 지원, 온라인 정책 교육, 사회활동 참여 적립 포인트제 등을 추진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2030 MZ세대를 위한 2.1조 규모 충남청년정책 시리즈

- #1 청년 공모사업**
 - ▲ 도내 거주 19~39세 청년 단체(3인 이상)
 - ▲ 팀별 최대 3000만 원 무상 지원
 - ▲ 청년 창업·기술 개발 아이디어 실현 지원
- #2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 도내 2235명 청년일자리
 - ▲ 기존 57개+신규 38개 사업
 - ▲ 채용 시 인건비, 창업지원경비 등 지원
- #3 청년 희망카드**
 - ▲ 도내 거주 23~25세 청년
 - ▲ 1인 당 연 30만 원 지원
 - ▲ 구직, 문화, 건강 등 비용 지원
- #4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채' 추가 공급 4000호**
 - ▲ 도내 청년, 신혼부부 대상
 - ▲ 공간 36~59㎡
 - ▲ 월 임대료 15만 원
 - ▲ 입주 후 1명 출산 임대료 50% 지원
 - ▲ 입주 후 2명 출산 임대료 100% 지원

청년정책 투자계획 (2021~2030년)

연도	예상 투자액 (억원)
2021년	1,330억원
2022년	2,311억원
2023년	2,342억원
2024년	3,026억원
2025년	3,293억원
2026년~2030년	9,054억원

“국방의 중심 충남 논산이 육사 이전 최적지입니다”… 범도민 추진위 결성

도, 육사 유치 전담조직 신설 추진
논산은 국방산학연 밀집된 최적지
국가균형발전-국방교육 연계 충분

충남도가 육군사관학교 경북 안동 이전 공약 발표에도 흔들림 없이 논산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검토 등 당위성 확보를 위한 행보에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 9일 논산시청에서 육사 유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논산은 국군장병 양성의 산실인 육군훈련소와 국방대를 품고 있으며,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의 중심이다.

또한 세계문화엑스포 개최지이자 3군 본부

가 있는 계룡시와 연계하여 국방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인접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국방 관련 산학연과 함께 디지털 강군, 스마트 국방을 구현하고 있는 곳이다.

올해 정부 예산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비 반영이라는 쾌거도 달성했다. 육군사관학교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방교육의 연계성, 이전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충남 논산이 최적지이다.

도는 예비역 장성과 시민단체, 도의회와 논산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도민이 모인 육사유치 추진위원회를 실행력을 갖춘 범도민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도민이 주체가 되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면 민간주도로 유치 관련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충남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감도

이와 함께 도청 내에도 유치 활동에 주력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한다.

도는 지난 7일에는 국회를 찾아 육사 이전 등 5개 지역현안을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0일에는 정해일 국방대 신임총장을 만나 국방대 차원에서의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균형발전과 041-635-3661

내포신도시 동일 생활권으로 관리한다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규약 마련
도·홍성·예산 참여 전국 첫 사례
내포 공공시설 통합 유지관리 협의

충남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도는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이 27일 도의회 임시회 제334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해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드는 전국 첫 사례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흥성군, 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구 설립을 논의해왔고, 올해 초 세 지자체가 뜻을 모아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안 등을 마련했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주요 업무는 내포신도시 내 ▲주민자치 활동 운영·지원 ▲각종 행사 및 지역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

장·공공용지, 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대중교통계획 협의 및 순환버스 운영 등이다.

또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주택 건설 사업 승인 협의 ▲지구단위 계획 협의·조정 등도 추진하게 된다.

도의회 통과 규약안은 오는 3월 흥성군과 예산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조합 설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정책과 041-635-4591

도정만평



설인호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지원 확대

교통·문화체험·진로개발 사용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충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돋기 위해 '세상소통카드' 사용범위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원한 세상소통카드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각

각 만 9~19세, 12개월로 확대했다.

사용범위도 교통비뿐만 아니라 문화체험·진로개발·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도 급식을 지원한다.

이는 제도권 무상급식에서 소외된 학생의 교육 평등권 보장과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서울·인천·

경기·부산·광주·전남·제주 등 7개 시도에 이어 전국 8번째다.

도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9개 시군 864명에게 180일간 출석일 1회 급식비 4000원을 제공한다. 대상자가 대안교육기관에 급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 분기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5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2026년까지 79% 공급 목표

충남도는 도내 도시가스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확대해 2026년 도시가스 공급률을 79%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는 배관망 총 2699km를 구축

해 시군 71만 9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 중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 까지 5년간 2650억 원을 들여 배관 510km를 연장하고 14만 3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말에는 도내 총 86만 300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된다.

올해 배관 121km를 연장해 3만 1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투자비의 70%인 384억 원은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제성이 부족한 소외지역 87곳에 투자한다.

소외지역에는 배관 84km를 연장해 72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 할 예정이다.

/에너지과 041-635-3465

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 숲길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 녹색공간, 휴양공간의 조성과 더불어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밀원수 조림은 밀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양봉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산림자원과 041-635-4501

내포문화숲길 명품길로 조성한다

밀원수 조성 등 2732억 투입

충남도가 중장기 산림정책 비전인 '숲으로 그린 더 행복한 충남' 구현에 올해 2732억 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286억 원, 밀원수 조성 등 산림자원 육성 712억 원, 산불방지 등 산림 보호·관리 588억 원 등이다.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내포문화숲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道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아동양육비 10→20만 원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월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아이돌봄지원센터 15곳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0-90%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 자체사업비로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연 30만 원의 월동비와 초중고생 자녀 1인당 연 20-40만 원의 자녀학습보조비, 2022년도 대학신입생에게는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신규지원을 희망하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4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보

손 씻기, 익혀먹기 등 안전수칙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식중독 주범인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 등을 섭취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바이러스로 기온이 낮을수록 유행이 심해진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일 안에 구토와 복통이 나타나고, 보통 5일 내에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단, 회복 후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사람간 2차 전파에 유의해야 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위해 음식 조리 전이나 외출 후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며 "굴 익혀먹기, 물 끓여 마시기 등 안전한 음식 섭취 수칙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31

덕산·칠갑산·대둔산 도립공원

5월 15일까지 탐방로 부분 통제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5월 15일까지 덕산·칠갑산·대둔산 등 도내 도립공원 3곳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도립공원 탐방로를 부분 통제해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추진하며, 도립공원 탐방로 31개 노선 78.4km 중 11개 노선 24km를 대상으

로 한다.

도립공원별 통제 구간은 덕산 가야봉~헬기장까지 1.5km, 칠갑산 휴양로·칠갑로 등 5개 노선 11.2km, 대둔산 영주사~월성봉·오산리~용바위 등 5개 노선 11.3km다.

통제 구간 및 입산 가능 구간 정보는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041-635-7287

"일손 필요한 농가 신청하세요"

시군 농정 부서, 지역농협 문의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100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도는 지난해 14개 시군 83개 지역농협에서 운영했던 농작업지원단을 올해부터 29곳 증가한 112개 전체 지역농협으로 확대했다.

농작업지원단은 농업인을 대상으

로 영농규모에 따라 농기계작업 지원 및 인력중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는 시군 농정 부서나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연중)하면 된다.

농기계 작업지원 및 전문 인력으로 활동하고 싶은 대상자는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관련 교육을 거쳐 작업자로 활동할 수 있다.

/식량원예과 041-635-4042

도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유재산 임차인 감면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

혔다.

임대료는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되며, 대상은 도유재산 전체로 확대된다.

또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신규 임차인 등을 위해 10% 기본 감면이 적용된다.

/세정과 041-635-3626

원정 산후조리 이제 그만…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충남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2)

- 충남 공공산후조리원(홍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2주 182만 원 도민 이용 가능

분만 예정달 2개월 전 예약

“합리적 가격 편리한 접근성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입주 후 두명 낳으면 임대료 무료

올해 출생아부터 200만원 바우처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충남도는 행복키움수당, 임산부 119구급서비스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집중한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분만의료 취약 지역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돋는 임산부 119서비스, 36개월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는 행복키움수당, 두 명의 아이를 낳으면 임대료가 무료인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충남 꿈비채) 공급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었다. 산후조리는 산모의 몸과



산모실.



신생아실과 사전검사실.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하다. 도는 민간산후조리원 대비 저렴한 가격,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 아이 탄생은 한 가정의 축복인 만큼, 임신·출산·보육을 자 자체가 책임지는 것이다. 충남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선도적인 출산친화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충청 유일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최근 산모와 아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홍성의료원 내에 개원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8인)과 신생아실, 수유실, 상담 및 간호스테이션, 프로그램홀 등을 설치했다. 신생아의 감염예방과 인전을 위해 신생아 사전관찰실과 격리실로



충남 홍성의료원 내 위치한 공공산후조리원.

구분 설치하고, 의료기관 수준의 음압 설비도 갖췄다. 신생아실 아기 자리마다 웹캠을 설치해 산모들이 언제든지 아기를 볼 수 있도록 했다.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기와 산모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신생아 전문케어(밸육상태), 산모 대상 강좌 및 셀프케어 등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2주 이용 182만 원' 경제적 부담↓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은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2주 기준 182만 원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의 70~80% 수준이다. 수급자, 장애인, 셋째 이상 등은 이용료의 10~50%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같아 예약했다”며 “무엇보다 집에서 거리가 가까워 좋았다. 코로나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남편이 함께 지낼 수 없는데, 집을 옮기는 등 남편이 오갈 때 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내포신도시 거주 윤지은씨는 “최근 첫째를 낳았는데, 당시 홍성에 조리원이 없어 다른 지역을 이용했다”며 “산모에게 산후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집과의 거리가 멀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씨는 “최근 홍성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겼다고 들었다. 둘째를 갖게 되면 접근성 좋고 가격도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임산부 119서비스로 안심 출산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돋는 임산부 119구급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하고, 위급상황 시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와 분만을 돋는다. 충남 꿈비채 공급사업은 입주 후 첫 아이가 태어나면 임대료 50% 지원, 2명을 낳으면 임대료 전액 100%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고, 다자녀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김정원 jwkim87@korea.kr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산 시대의 중요한 사회 안전망”

특별기고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은 비용격차와 프로그램 이용 강요, 감염과 안전 등의 문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제기되었다. 여기에 소득불평등과 국가의 소극적 복지정책이 영아 사망률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학계의 주장은 산후조리원을 시장원리에 의존하지 말고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야 한다는 아젠다를 형성하기에 충분하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2017년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었고 2018년부터 지역의 산후조리원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에 충남도는 2019년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고, 최근 충청권 최초로 홍성군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

하게 되었다.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도민의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 충남도 사회서비스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49세 1033명 도민 중 92.3%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중 65%는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현상으로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감소하면서 지역 산모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원정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 현

실에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삶의 과정(life course)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성자원과 신생아의 건강회복 및 돌봄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한다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서 도민의 삶의 질도 함께 상승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다면,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민간 산후조리원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운추구보다 공공성 확보의 가치 실현에 초점을 두어 운영할 때 충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과 기능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다.

/오정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

함께하는 행복걷기

걷기

“지금 바로 걷기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걷기 와 함께 걸으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 함께 걸어 기쁨 두 배! - 가족, 친구와 함께 걸으면 즐거움도 커집니다.
- 걷는 만큼 포인트가 차곡차곡! - 건강을 쟁기고 포인트도 쌓입니다.
- 기부 캠페인에 참여! - 모든 걸음으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 하루 활동량을 체크! - 걸어서 소모된 칼로리를 알 수 있습니다.
- 어르신께는 인센티브! - 목표 걸음을 달성한 어르신께 건강상품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걷기 앱을 다운 받아보세요!]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체육회 Chungnam Sports Council

道, '6020억' 새해 첫 대규모 투자유치

도·서산·롯데케미칼 투자협약
내년 12월까지 공장 신·증설
전기차 배터리 핵심용매 국산화

충남도가 세계적인 화학기업 롯데케미칼로부터 6000억 원대 대규모 공장 신·증설 투자를 유치했다.

충남도는 서산시, 롯데케미칼과 2월 7일 롯데케미칼 공장 신·증설에 관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롯데케미칼은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6만 7500㎡ 면적에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602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하고 설비를 교체한다.

우선 233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전

기차 배터리 전해액 유기용매인 에틸렌 카보네이트(EC), 디메틸 카보네이트(DMC)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에틸렌 카보네이트와 디메틸 카보네이트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전해액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유기용매로, 전해액 원가 비중의 약 30%를 차지해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하는 공장에서 두 가지 소재를 생산하게 되면 친환경 전기차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롯데케미칼은 1645억 원을 들여 고층 빌딩이나 교량, 댐 등 대형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감수제의 원료인 건축용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산화에틸렌유도체(EOA)

의 생산 라인을 기존 33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증설한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액화 설비에는 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20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이 기대된다.

도와 서산시는 기업의 투자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서산시 내 생산액 변화 2611억 원, 부가가치 변화 369억 원, 신규 고용 창출 60명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건설에 따른 도내 단발성 효과도 생산 유발 8527억 원, 부가가치 유발 2984억 원, 고용 유발 7892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입지과 041-635-3388



'납매' 노란 꽃망울 터뜨려 입춘인 4일 충남 태안 천리포수목원을 찾은 관람객이 추위를 이기고 만개한 노란색 납매를 사진에 담고 있다.
/천리포수목원 제공

道 친환경·자율주행차 전환 지원한다

올해 9개 사업에 421억 투입
수소차 부품 개발, 바이어 발굴

충남도가 도내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촉진 지원을 위해 9개 사업에 421억 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부품산업 전환 유도를 위한 도의 '디딤돌 사업' 3대 추진 과제는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거래선 다변화 등이다.

친환경 자동차 분야는 수소연료전지 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소형 전기상용차 개발 지원, 수소차 보급 등 3개 사업 245억 3500만 원이다.

수소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은 세계적인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자동차 중 하나인 수소차의 부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는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 개발 및 실증, 자

동차 튜닝 생태계 조성, 융합형 전장 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 등 3개 사업에 164억 6900만 원을 투입한다.

거래선 다변화는 정보와 수출 역량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바이어 발굴 및 연결, 무역 실무 등 맞춤형 지원을 펴는 사업이다.

도는 이와 함께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안정과 수입 의존도 해소 지원을 위해 차량용반도체·자율주행 R&D 센터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육성과 041-635-3931

미래 먹거리 이차전지산업 경쟁력 강화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

충남도는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신제품 개발 및 이차전지 기반 응용산업 육성에 집중한다.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이차전지기술센터는 국내 최초로 'BMS 시

험평가지원 체계'를 구축, 2013년부터 소형 셀을 제조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제조라인을 구축하여 충남의 이차전지 기업들의 제품 및 소재부품의 고도화 및 신뢰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 충남TP 부지에 한국산업기술원(KTI)의 중대형 이차전지 시험인

증센터를 유치했다. 기존 해외 시험비용보다 약 40% 절감하고, 인증 기간은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지원한다.

충남TP-한국산업기술원 기관협력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소재 이차전지 산업 전·후방 연관기업 대상으로 제품고급화, 시험평가·인증 지원,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충남테크노파크 041-589-0730

벤처기업 역량 강화시켜 성장 돋는다

충남신용보증재단·벤처협회 협약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지난 1월 24일 (사)충남벤처협회(회장 남승일)와 충남 벤처기업 역량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충남 벤처기업의 성장에 맞는 금융과 더불어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부여·청양에 각각 25실 짓는다

안정적 주거 공간 마련 통해

농가 부담 덜고 농촌인력 확보

충남도는 부여와 청양군이 전국 최초 마을 공동형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건립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합법화된 시설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

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여와 청양군에는 내년까지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각각 객실 25실(50명 규모)과 개인 위생공간, 식당·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춘 기숙사를 건립한다.

기숙사 건립 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은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농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량원예과 041-635-4041

모빌리티 산업 연계해 교육혁신 모색

DSC 모빌리티 플랫폼 데이

지자체·대학·기업 네트워크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이하 DSC)은 1월 27일 '2022 DSC 모빌리티 플랫폼 데이'를 개최했다.

행사는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통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지자체·기업·혁신기관 및 대학 간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지역혁

신 및 교육혁신 방안 등을 공유했다. DSC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을 통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지역정책이라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총 3411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대전·세종·충남 지역혁신플랫폼 041-680-6800

식품위생업소 노후시설 개선 융자

1% 저리 5000만 원까지 지원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한다.

최고 5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이번 융자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도내에서 영업 신고(허가)를 득하고, 노후화된 시설, 실내 디자인 교체, 테이블 아크릴 칸막이 설치 등을 하고자 하는 업소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

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KB 국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융자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내 시군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2), 관할 시군 식품위생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잠시 멈춤 모임과 만남을 잠시 멈춰주세요

문밖을 나설 때는 맞다. 마스크!

카페에서 대화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버스를 탈 때,
일하는 동안에도,
바람 쐬러 나와서도,
잠깐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조차
문밖을 나설 때는
마스크를 쓰세요.



농가·전처리기업·식품제조·유통기업 상생 협력 가치 사슬

‘충남 논산형 일자리 모델’ 탄생

노사민정 22개 기관 상생 협약

평균임금 242만 원이상 실현 추진

충남도가 상생 협력 일자리 모델이 될 ‘논산형 일자리’를 추진한다.

도는 1월 27일 노사민정 간 논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논산형 일자리는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농가·전처리기업(fresh cut)-식품제조기업-유통기업 간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

로 한다.

참여 기업은 온라인 유통망 입점 지원, 중소기업 대상 기술 지원 등을 제공받으며, 참여 기업 간 기술 제휴를 통한 협업 제품 개발 등도 추진 한다.

이번 협약에는 노동자 대표로 한국노총 논산지역본부와 한미식품 근로자 대표가 참여했고 CJ제일제당 등 11개 기업, 논산시의회·건양대 등 민간 대표 4개 기관, 도와 논산시 등 5개 기관까지 총 22개 노사민정 기관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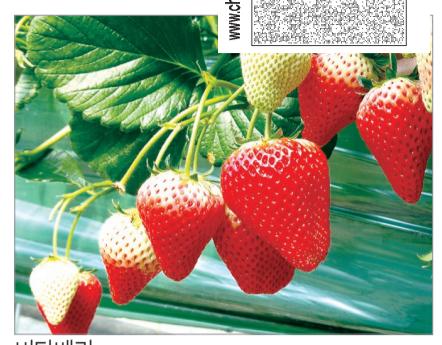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상생 협

력의 지속 발전 체계 구축 ▲합리적 노사관계와 적정 근로조건 실현 ▲기업 간 상생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 ▲인력 양성 및 인력 수급 체계화 등에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논산시 제조업 임금 평균 수준을 노동자 임금 평균인 235.9만 원에서 242.1만 원 이상으로 향상해 적정 임금 실현에 나선다.

논산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11개 기관은 오는 2024년까지 1776억 원을 투자하고 355명을 직접 고용할 계획이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1



충남 농기원, 신품종 딸기 두리향·비타베리 기술이전 성사

업체 3곳에 123만 주 보급

나딸기농장, 클로렐라영농조합법인 3곳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신품종 딸기 두리향과 비타베리 품종을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통상실시권 허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두리향은 과즙이 풍부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며, 비타베리는 비타민C 함유량이 높아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호·찬, (주)다

/충남농업기술원 041-635-6054



충남 교통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 충남도는 2월 7일 아산시 온양온천역 일원에서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한 올해 2번째 ‘교통안전의 날’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는 아산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교통연수원, 아산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자치경찰유스폴리더스 등 교통 유관기관과 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교통안전의 날, 알뜰교통카드 등 교통정책을 알리고, 교통안전물품을 배포했다.

도, 무료 생리대 자판기 설치 늘린다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 확대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만 9~24세

충남도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위생물품 바우처와 무료 자판기 운영을 확대한다.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연령은

만 9~24세로 확대하고, 지원액은 월 1만 2000원(연 14만 4000원)으로 증액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가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자 연령별 지원 기간이 달라 주의해야 한다.

보건위생물품 무료 자판기 설치·운영도 늘린다. 여성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군 청소년시설에 총 57대가 설치됐으며, 올 하반기 도청·사업소, 도 소속 공공기관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90

소년 이순신은 왜 말타고 참외밭을 달렸을까?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

어린 시절 친구들이 따르고
항상 활과 화살 지니고 다녀
서리 유혹에도 흔들림 없어

이순신장군은 유년 시절을 서울(한성)과 아산에서 보냈다.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은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소년 순신은 어릴 적 이웃 아이들과 더불어 항상 전쟁놀이를 즐겼고, 그 때마다 아이들은 순신을 대장으로 삼았다. 순신은 늘 활과 화살을 지니고 다녔으며, 마을의 어른이라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즉시 화살을 겨누는 힘에 마을 사람들은 두렵게 여겨 그의 집 앞을 지나다니기를 꺼렸다’고 한다.

이순신의 어린 시절 일화에 대해 『충무록』(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소장)의 「행장」에 비화(秘話) 2가지



‘충무공 십경도’ 중 소년시절. 현충사 소장

가 소개되어 있다.

하나는 이순신이 8세 때 원두밭을 지나다 참외를 달라고 하였으나 참외 주인이 주지 않자, 집에 돌아와 매어 두었던 말을 타고 와 참외밭을 달렸다. 이에 참외 주인이 간절히 빌자 그제야 그만두었다. 그 후 참외밭 주인은 이순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마주 나와 참외를 바쳤다고 한다.

다른 한 비화는, 어느 날 소경아이가 이순신에게 밀하길, “아무개 집에 동과(冬瓜 : 동아)가 많이 열렸으니 밤에 가서 서리하자.”하니 이순신이 허락하였다. 밤이 되자 이순신이 소경아이의 손을 이끌고 동네를 서너 번 돌아 소경의 집에 이르러 동과 열린 집에 다 왔다. 하니, 아이가 동과를 서리하려 지붕에 올라가자 내버려두고 가버렸다. 소경의 어미가 도둑이 왔다 하고 불을 들고 나와 보니 제 자식이 지붕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는 그 아이로 하여금 마음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자 함이었다.

이와 같이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무인의 자질이 보이는 행동과 정의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성장하였고, 동시에 유학(儒學) 배우기에 힘써 선비로서의 자질도 함께 갖춰나갔다. 이러한 습성이 후일 문무를 겹친한 장수가 된 배경이 아닐까 생각된다.

/제장명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장

백제문화제 포스터 디자인 공모

백제문화제재단, 21일까지 접수

(재)백제문화제재단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개최 예정인 제68회 백제문화제 사전 흥보 등을 위해 포스터 디자인 공모를 한다.

이번 공모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백제문화제재단 홈페이지 (<https://www.baekje.org/kor/>)에

서 공고문을 참고하여 2월 21일까지 신청서 및 작품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적합성·독창성·예술성·완성도·활용성·정확성 등 6가지 항목으로, 대상에 선정된 작품은 제68회 백제문화제 포스터 및 흥보물 제작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재)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91

‘일제잔재’ 토지대장 한글화한다

9개 시군 토지대장 123만 매 대상
문서 전산화로 지적서비스 향상

충남도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옛 토지대장 한글화로 일제 잔재 청산과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해 ‘조상땅 찾기’ 등 지적민원서 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3개 시군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올해 9개 시군으로 확대해 도민 대상 지적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계획이다.

한글화는 토지대장을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토지표시사항·이동·연혁·소유자 정보를 한글로 바꾸는 방식이다.

올해 천안·공주·보령·아산·논산·계룡·당진·부여·청양 9개 시군의 토지대장 123만여 매를 한글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일제잔재 청산과 영구 보존문서의 전산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민원인이 알기 쉽게 한글로 표기해 ‘조상땅 찾기’ 등 지적민원서 비스 제공도 기대된다.

토지대장은 토지표시사항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적공부다.

옛 토지대장은 일제강점기였던 1910~1915년 일본식 한문 용어로 제작돼 식별이 어려웠다.

/토지관리과 041-635-4799

충남도정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중부권 미세먼지 배출·이동 추적한다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공주에 개소, 대기환경 분석 돌입

충남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역 내 미세
먼지 배출과 이동 등을 장기간 추적·
분석·관리하는 전문 연구센터가 문을
열고 가동을 본격 시작했다.

도에 따르면, 중부권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센터장 김맹기 공주대 교
수) 개소식이 1월 24일 공주대에서
열렸다.

센터는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 6개

시군, 전북 3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질 위험 예측과 감시
기반 구축 활동을 펼친다.

공주대가 주관하고, 도와 한서대가
협력하는 이 센터는 3개 연구팀과 정
보관리팀, 사무국 등으로 조직을 구성
하고, 대학교수와 석박사 등 28명의
인력이 참여한다.

센터는 2024년 9월까지 ▲중부권 고
해상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구축
및 검증 ▲충청권역 상세 기상·대기질
융합 분석 체계 개발 ▲중부권 고농도
미세먼지 기상·기후 영향 원인 분석을

실시한다.

중부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구
축에는 항공기를 활용, 신규 배출량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또 중부권 미세먼지 사례 분석과
배출량 관측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 구축, 교육 및 홍보 사업도 추진
한다.

도는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
정·분석 정보를 제공 받아 지역 맞춤
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17



사랑의 온도 '120도' 코로나 위기에도 온정 넘쳤다

충남도는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120도를 기록했다.
도와 충남도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
망2022나눔캠페인'의 총 모금액은 178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민 1인당 모금액은 8427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모금 총액은 서울, 경
기 다음으로 전국 3위이다.

충남도는 연말연시 기부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120도를 기록했다.
도와 충남도금회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한 '희
망2022나눔캠페인'의 총 모금액은 178억 5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도민 1인당 모금액은 8427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모금 총액은 서울, 경
기 다음으로 전국 3위이다.

“지구 위해 분리수거 실천합니다”

어린이 눈높이 탄소중립 교육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원장 조양
순)은 겨울방학을 맞아 계룡 신도초등
학교 1학년 돌봄 교실과 공주 신월다
함께돌봄센터 이용 어린이들을 대상으
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찾아가는 탄
소중립교육 ‘꿈을 그린(green) 어린

이’를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
식하고 공감하기, 해결방안 찾기, 탄소
중립 실천 활동 체험하기 등으로 구성
됐다.

특히 보드게임, 신체놀이, 북아트 등
활동을 통해 세계생태시민으로서 필요
한 책임, 존중, 배려 등 인성덕목을 내

면화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 참여한 채혁남(신월초 4학
년) 어린이는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배워
뿌듯하고 지구를 위해 앞으로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꿈을 그린(green) 어린이’는 초등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해
이해하고 실천하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042-825-1542

악취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하세요

최대 3500만 원 지원

충남도는 사업장·축사 등 소규모 악취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
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악취 민원 1년 이상 지
속)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
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으
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당한다.

올해 총 10곳을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총사업
비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조
금 70%(설치비 최대 3500만 원)를 지
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
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4445

식중독 원인균 찾아 사고 예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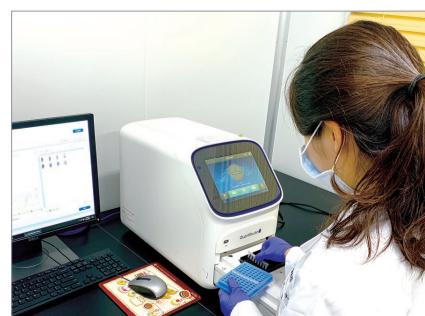
도내 유통 식재료 식중독균 추적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중독균 오염 우
려가 있는 식재료를 대상으로 ‘식중독
균 추적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식중독균 추적관리는 도내 유통되는

식재료를 모니터링 해 식중독균을 조
사한 뒤 특성을 분석하고, 유전체 정
보를 확보한다. (사진)

이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식품과
환경에서의 원인균을 추적하고, 대규
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34

도, 여성사회참여확대 보조사업자 공모

2월 22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충남도는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보
조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

사업자는 여성의 권리증진, 여성인
재 양성, 건강가정 육성, 일가정 양
립문화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는 2월 22일까지이며,
지원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도 여

성가족정책관실에 방문 또는 등기우
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한 여성단체이
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공고·고
시 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1

문중만 알고 쉬쉬한 영정 도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할 충남의 도난문화재

- 당진 한음선생 영정

1988년 문중서 도난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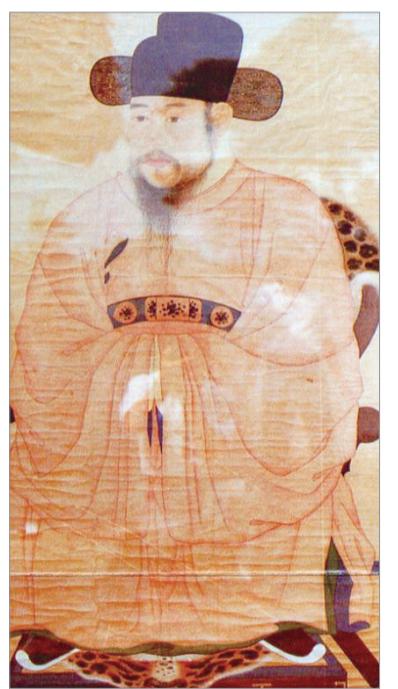
자체 조사하다 신고 늦어져
문화재 도난 신고 즉시 해야

원, 포천의 용주서원에도 봉안되
어 있었는데 모두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이곳에만 남아 있었다
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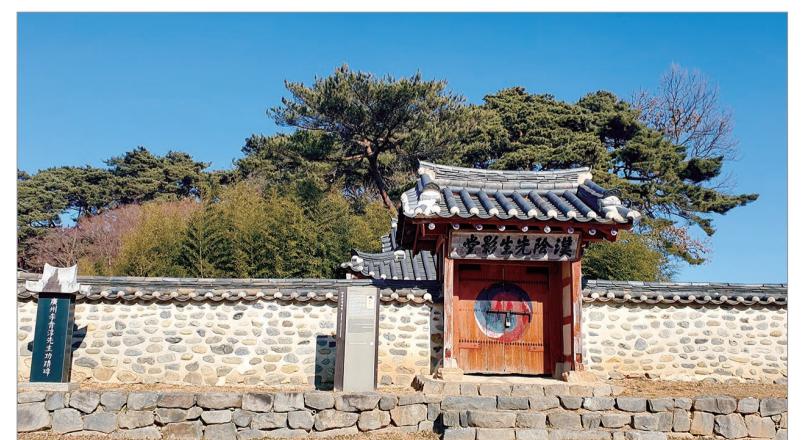
당진의 한음선생영당에 보관되
어 있던 영정은 1995년 영당을
보수할 적에 종손인 이민석이 보
관하고 있었는데 1997년 그가 사
망하였고 1998년 문중에서 영정이
도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자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미처
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진군에서
는 2005년 영정을 점검하는 과정
에서 영당에 걸려있는 것이 모사
품인 것을 발견하고 후손들에게
확인한 결과 영정이 도난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문중에서 영정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서 자체 조사하는 과정
에서 신고가 늦어졌고, 당진군에
서 점검차 영정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난당한 이
영정을 찾기에는 많은 시간이 지
나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다.

/이상현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



당진 한음선생 영정



당진 한음선생영당 전경

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8.18% 올랐다

전국 상승률 보다 0.93% 높아
천안 신부동 일대 m²당 1190만 원
청양 정산면 천장리 m²당 425원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상승률 7.25% 대비 0.93%p 상승한 수치다.

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전년 9.33%), 아산시 10.14%(전년 8.91%), 공주시가 9.19%(전년 6.58%)의 변동률을 기록하

며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또 그동안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도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m²당 1190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m²당 425원이다.

도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상승률이 전년대비 소폭에 그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꾸준한 상승률

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평균상승률은 10.17%이며, 최고 상승률 서울은 11.21%, 최저 상승률 인천은 7.44%이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6

큰 불 날 뻔한 도로변 화재 편의점 주인이 진화

천안 이대우 씨 모범신고자 선정
소화기 비치 미니소방서 편의점

최근 화재 현장을 목격한 편의점 주인이 소화기로 재빨리 꺼 자칫 전기차 충전시설로 번질 뻔한 상황을 막았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 5분경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변에 있는 종량제봉투 전용 수거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일하던 이대우(사진) 씨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 뒤 편의점 안에 있던 소화기 2대를 들고 화재 현장으

로 달려갔다.

이씨는 쓰레기와 수거함 주변에 쌓인 생활폐기물에 붙은 화재를 진압했다.

잠시 후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화재는 모두 진압되어 있었고 간단한 안전 조치만 했다.

소방본부는 화재가 계속됐다면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로 불이 옮겨붙는 등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대우 씨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히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방청과 편의점과의 협약에 대해 익히 들어 평소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소방청과 (주)GS리테일은 전국 모든 GS25편의점에서 누구나 소화기를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미니소방서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충남소방본부 041-635-3119

충청권 4개 시도 하계U대회 후보 도시 확정

미국 2곳 후보도시와 경합
최종 개최 도시 선정에 집중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후보 도시로 확정됐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국제 대학스포츠연맹 사무국으로부터 애릭 생트롱 사무총장 명의의 후보 확정 서한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 도시에는 우리나라 충청권 4개 시도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2곳이 이름을 올렸다.

최종 개최 도시는 오는 10월 9일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대학스포츠연맹 집행위원총회에서 후보 도시의 최종 발표에 이어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전세계 150개국에서 참가한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충남도립대 지난해 57명 공직 합격

지적·소방·행정·경찰 두각

충남도립대학교(총장 김용찬)가 지난해 57명의 공직자를 배출하며 ‘공직진출 특성화 대학’이라는 명성을 또 한 번 높였다.

충남도립대학교 취업지원처는 2021년 공무원 합격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총 57명의 학생이 공직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지적직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직(9명)과 행정직(9명), 경

찰직(6명)이 뒤를 이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79



충남도립대학교

With U,
with heart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도전

2027 World University Games in Chungcheong Megacity

개최지 |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기 간 | 2027년 8월 중(12일간)

규 모 | 150개국, 15,000여명(선수단, 임원, 미디어 등)

종 목 | 18개(기본 15, 선택 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서리태는 할매들의 청춘입니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하는 청춘페이지

-이갑예 어르신의 ‘서리태’

계산기가 되어준 서리태에

어머니 청춘도 담겨

절룩이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 문 해교실에 오시는 이갑예 어머니. 여든셋입니다.

거동은 불편하여도 마음만은 가볍습니다. 누구보다 학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詩 ‘서리태 한주먹’에는 배움의 재미와 열정이 반짝입니다. 옥수수알 틀어쥐고 숫자를 셉니다.

옆자리 성님(형님)도 반색하며 꿰 달라고 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반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지 내일 서리태 한주먹씩 갖다준다고 합니다. 서리태는 모자란 손가락보다 훌륭한 계산기가 됩니다. 이제 한 줌의 서리태에는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공평



하게 한 줌씩입니다. 경쟁도 다툼도 없는 검은 색입니다.

서리를 맞은 후 수확한다는 서리태는 밥의 단짝입니다. 서리를 맞은 지 한참된 할매들입니다.

서리태 껌질은 검은색이지만 속은 파랑습니다. 까마눈 여든셋의 어머니 마음도 청춘입니다.

‘다음 날부터 할매들 필통에 서리태 한주먹씩 들어갔다.’ 어머니들의 청춘이 필통에 담겼습니다.

/도정신문팀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72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에 임미림 씨

“양성평등 충남 실현하겠다”

임미림(사진) 대한간호협회 충남간호사회 회장이 제39대 충남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임 신임회장은 1년간 양성평등한 충남을 목표로 협의회를 이끌게 된다.

임 회장은 “도내 여성들의 역할을 모아 양성평등 충남을 실현하고, 여

성단체 연대와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여성 권리 향상과 양

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양성평등 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도 여성대회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3



충남도민 걷기 저변 확대한다

충남체육회·웰컴저축은행 MOU

충청남도체육회(회장 김덕호, 이하 충남체육회)는 지난 1월 21일 건강리워드 프로그램 ‘웰링Walking(가칭)’을 개발 중인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대표 김대웅, 이하 웰컴저축은행)와 충남도민 걷기증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걷주’ 및 ‘웰링Walking(가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수행 사업에 대한 협조 등을 진행한다.

충남체육회와 웰컴저축은행은 ‘걷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5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충남체육회 041-635-0124

충남도청 남자마라톤팀 전국대회 준우승

2시간 6분 55초 기록

충남도청 남자마라톤팀이 새해 첫 전국대회에서 단체전 준우승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는 지난 1월 23일 제주시 한림읍 일원에서 열린 ‘2022 전국 로드레이스 대회’에 도청 남자마라톤팀이 출전해 준우승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도에서는 이의수 감독과 정하늘, 이주니, 이영우, 전수환 선수가 참가했으며, 각각 10km 종목에 참여해 합산 기록 2시간 6분 55초로 단체전 준



충남도청 남자마라톤팀

우승을 차지했다.

도청 마라톤팀은 4월 대구국제마라톤대회와 10월 전국체전을 대비할 계획이다.

/체육진흥과 041-635-3863

황토밭엔 달래, 갯벌에선 감태가 봄을 손짓

황토에서 자라 향이 독특
태안 특산물 감태도 별미

[태안]봄철로 접어들면서 태안의 황토밭에서는 냉이와 달래, 바다에서는 봄의 전령 감태 수확이 한창이다.

12월 중순부터 3월까지 냉이와 달래 280여 톤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등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태안지역에서 생산되는 냉이는 갓바람을 맞고 자라 쌉쌀한 맛과 진한 향이 일품이다.

태안 달래도 비옥한 황토에서 자라 맛과 향이 독특하고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많아 건강식품으로 인기다.

태안군 청정갯벌에서 봄 미각의 전령사 감태 채취가 한창이다. 태안산



태안 이월면 갯벌에서 어민이 감태를 채취하고 있다.

감태는 다른 지역의 감태에 비해 쓴 맛이 없고 바다향이 진하며 상품가치가 높아 전국의 미식가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는 4월 초까지 채취가 가능해 겨울철 어가의 고소득원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정신문팀

충견의 도시 홍성군, 반려동물센터 건립한다

20억 들여 내년 완공키로
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홍성]홍성군이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으로 동물복지에 나선다.

군은 따르면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홍성지역의 위탁보호 운영 인력이나 시설은 열악한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해 보호시설과 입양, 교육, 놀이터 등 유기동물 관리체계 확보와 동물복지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되는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유기동물 보호동과 입양동, 동물병원, 교육실(소유자 교육 및 동물행동교육), 반려동물 놀이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군은 우수동물보호센터 견학과 사업대상지 공모,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을 거쳐 2023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지원과 반려동물 홍보물 제작, 유기동물 입양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해 실종된 할머니의 곁을 40시간 동안 지켜 생명을 구한 우리나라 최초 명예 119 구조견 백구에 대해 동물등록을 마쳤다.

군 관계자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건립,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정신문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양 카페’ 개소

입양률 제고 역할 기대

[서산]서산시는 동물보호센터에 입양 카페를 개소해 운영에 들어간다.

시는 이 카페를 통해 유기 동물 입양 희망자와 입양 동물 간 사전 교감·관찰, 정보공유 등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입양 상담과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시는 카페가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를 확산하고 입양률을 높이는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시~3시에 각각 운영한다.

입양 상담은 월, 화, 목, 금요일 주 4일 예약제로 하며, 예약 신청은 서산시 동물보호센터 네이버 카페 예약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된다.

서산시는 유기 동물의 관리와 보호, 입양을 위한 동물보호센터와 반려견 놀이터를 지난해 5월 개장, 운영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삽교호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야생생물 생태계 보호 결실
영농 어업행위는 제한 없어

[당진]당진시가 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 주요 월동지인 우강면 부장리와 신촌리, 소들섬 등 삽교호 일원을 지난 달 28일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곳에는 생태조사 결과 흰꼬리수리, 큰고니, 수달, 수원청개구리 등 10여 종의 1, 2급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의 소들섬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민간단체(소들섬)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의 요청으로 민·관이 함께 이뤄낸 결실로 평가된다.

당진시 조례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도 이곳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과 어로행위 등은 가능하다.

당진시는 5월까지 소들섬의 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철새 먹이 제공을 위한 벚꽃 존치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농민과의 협의를 거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나영/당진신문

태안군, 호박고구마 명품화 박차

배양묘 6만 본 농가 보급

[태안]태안군은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무료 공급해 지역 특산물인 황토호박 고구마 명품화에 나선다. 군은 고구마 재배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무병묘를 보급한다.

마의 생장점을 채취해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를 대량 증식하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무병묘는 일반묘에 비해 30% 이상 증수가 가능하고 모양과 색이 우수하며 맛도 좋아 태안산 황토호박고구마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6만 본의



사진은 태안군이 고구마 조직배양묘(무병묘)를 재배하는 모습.

무병묘를 공급할 계획이다.

/태안군 제공

여의도 3.5배 논산딸기밭 메타버스로 축제 펼쳐진다

‘눈꽃 피어나는 딸기향’ 주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전도

[논산]‘2022년 제24회 딸기축제’가 오는 2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

논산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축제를 열어 논산딸기의 맛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열렸던 ‘온택트 논산딸기축제’는 1일 평균 3만 명, 총 100만 회의 노출수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행사로 진행됐다.

/논산시 제공



성주산 편백나무 숲에 산책로 조성

[보령]보령시 성주면 편백나무 숲에 산책로가 조성된다. 성주면 편백나무 숲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생활형 힐링장소였으나, 이번 산책로 조성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보령시 제공

여름의 고장, 대천해수욕장 7월 2일 개장

무창포 7월 9일 개장

[보령]보령시는 2022년 해수욕장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천해수욕장은 7월 2일, 무창포해수욕장은 7월 9일 각각 개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장 전 관광객 맞이를 위해 6월까지 편의시설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및 토양조사를 통해 안전성을 갖출 계획이다.

/보령시 제공

농부가 된 컴퓨터 박사, 마을 정보화 앞장

컴퓨터 프로그래머 이영배씨
황새마을 귀농해 재능기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활동했던 이영배씨는 황새마을에서 인생 2막을 열었다.

모든 물량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마을 컴퓨터 강사로 초빙돼 연간 68회 지역민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정보화교육을 도맡고 있다. 이 씨는 또 황새마을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전략도 세우고 있다.

이 씨는 “귀농인과 기존 주민들 서로 도움이 되는 건강한 귀농귀촌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기원/홍주신문

천안시 부성역 신설로 수도권 경계 하문다

북부 생활권에 2026년 개통
수도권 동일생활권 형성 촉진

[천안] 천안 부성역(가칭) 신설이 최종 승인됐다. 천안시는 부성역 신설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역 신설을 최종 승인받았다 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직신역과 두정역 사이에 신설될 부성역은 현재 공사 중인 역사 주변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성선, 부대, 업성지구 등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이다. 경제적 타당성(B/C 1.03)이 확보됐다.

시는 국토교통부와의 부성역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올 안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와 3자 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건축면적 4400m², 승강장 220m 규모에 총사업비 403억 원의 선상 역사를 신축할 계획이다.

천안시는 “북부생활권 발전과 수도권 전철 화장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동일 생활권을 형성해 천안시민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제공

부여 청포리 밭에서 공룡알 화석 발견

백악기 집단 서식지 추정
2013년에도 주변에서 발견

[부여]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밭에서 중생대 백악기 시기 공룡알로 추정되는 화석 4~5기가 발견됐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역주민 A씨 지난달 19일 청포리 산9-4번지 자신의 밭에서 개간 중 공룡알 화석을 발견한

뒤 당국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 청포리 산9-4번지에서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다른 공룡알 화석을 발견한 뒤 당국에 신고했다. 당시 발견한 공룡알 화석은 당국의 정식 조사를 거쳐 중생대 백악기 시기 공룡알로 인정받았다.

군은 이번에 발견된 공룡알 추정 화석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조사 의뢰하는 한편 문화재청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부여 세도면 청포리 밭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

/부여군 제공

내포보부상촌 ‘강소형 잠재관광지’ 선정

관광 마케팅 비용 혜택

[예산]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가 주관하는 ‘2022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 공모’에서 예산군의 내포보부상촌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군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와

‘강소형 잠재관광지 구축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통해 관광 상품개발 지원, 유력매체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등 1억 5000만 원 범위 내 전액 국비로 관광마케팅 지원을 받게 된다.

강소형 잠재관광지는 인지도는 낮지

만 향후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의미

한다.

지난 2020년 7월 개장한 내포보부상촌은 국내 유일한 보부상 테마파크로 보부상 문화의 거점인 덕산지역에 위치해 내포문화 특징과 보부상 고유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다.

/예산군 제공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지역화폐로 환급

지역화폐로 환급해줘
주변 상권 소비촉진

[논산] 논산시는 3월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변 상가에서 사용토록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논산시는 3월부터 탑정호 출렁다리 입장료를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성인은 3000원을 내면 2000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주고, 어린이와 청소년은 입장료 2000원을 내면 1000원을 논산사랑 지역화폐로 환급받아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작년 11월 개통한 탑정호 출렁다리



국내 최장 600m길이를 자랑하는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는 국내 최장 600m길이를 자랑한다. 또 화려한 미디어 파사드, 음악분수 레이저쇼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논산시민과 국가유공자, 장애

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물론 당일 논산시 관내에서 해당 입장료 이상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무료로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

/논산시 제공

아산시, 쓰레기 소각열 판매 8년간 32억 원 번다

남은 소각열 기업에 판매
기업은 연 3000톤 탄소 저감

[아산] 아산시는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남은 여유 소각열 1만7000톤을 2월부터 신규 공급하고 있다.

시는 (주)경보제약에서 선투자한 스팀 및 응축수 배관 설치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판매단기를 8년간 톤당 2만5000원으로 고정하고 연간 소각열 1만7000톤을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시는 경보제약에 소각열을 판매해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내 소각장 전경

연간 4억원, 8년간 32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각열 공급을 위해 아산시는 환경

과학공원 내 생활자원처리장 스팀 공급을 위한 배관을 설치, 현재 시운전 및 안정화 작업 중에 있다.

시는 매년 남아 버려지는 잉여 소각열 2만톤 중 1만7000톤을 신규 공급해 재정수익 및 소각시설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예정이다. 현재 수급처인 (주)경보제약은 시중 LNG보다 저렴한 소각열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온실가스 또한 연간 3000톤(CO₂) 저감시켜 업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시 제공

홍성군, 한우·한돈 사골육수로 아이스팩 개발 성공 ‘일거양득’

젤 아이스팩 대체품 개발
소비·오염 해결 일거양득



홍성군 축산물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한우사골육수 아이스팩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된 가공품은 기존 젤 아이스팩처럼 버려지는 대신 각종 요리의 육수로 활용 가능해 환경오염 예방과 홍성군 축산물 소비 활성화라는 두

/홍성군 제공

당진, 과수화상병 수칙 준수 행정명령

과수 쾌양 제거 의무화
위반해 발병 시 손실 청구

[당진·지역종합] 당진시와 도내 시군이 지난해 큰 피해를 준 과수화상병 선제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련 농가의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은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장비·도구 등 소독, 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과수 쾌양 제거 의무 등을 담고 있다.

이번 명령은 ‘식물방역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하면 방역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도정신문팀

천안시 전기차 1년 사이 두 배 늘었다

외국산 자동차 6% 증가

[천안] 지난해 천안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모두 2092대가 등록된 가운데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저속전기 포함)는 2019년 584대, 2020년 1066대, 2021년 2092대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96.2% 늘어났고, 2019년 대비 3배 이

상 늘어났다.

천안시 전체 등록차량 중 외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외국산 차량은 2만2701대로 전년 대비 1418대 증가했고, 전체 자동차 중 6.6%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 대비 외국산 자동차는 6%인 1418대 증가했으며, 2017년 대비 33%(7480대) 늘어났다.

/천안시 제공

홍성 평균연령 10년 새 3.2세 상승

청년인구 비중 4%P ↓

[홍성] 지난해 12월 기준 홍성군민들의 평균연령은 47.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2011년 12월 기준 홍성군 평균연령은 43.9세로, 10년 만에 3.2세가 늘어났다.

또한 홍성군 총인구대비 청년인구(만18~39세) 비율은 2011년 25%에서

지난해 말 기준 21%로 4%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청년인구수도 2만 2201명에서 2만 1256명으로 945명 감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홍성군에서 출생한 인구는 모두 517명이며, 사망한 인구는 893명으로 출생인구보다 376명 많았다.

한관우/홍주신문

천안시, 소방차 먼저 지능형 교통 구축

긴급상황 발생시 우선 신호

[천안] 천안시가 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에 나선다.

천안시는 교통체계 흐름 개선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확대구축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호제어시스템과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은 충남소방본부와 데이터

통신 연계 개발을 통한 서비스 구현으로,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에 설치된 위치단말기를 활용해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구급차와 소방차의 이동경로에 따라 맞춤형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천안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사업비 95억원을 들여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천안시 제공

유튜브 속으로 들어간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구축

우리 마을의 기분 좋은 변화(7)

- 보령중앙시장 라이브커머스
사업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온라인 생중계 제품 소개·판매
매출 90%·구독자 수 20배 늘어
지역 한계 넘어 전국 고객 확보

[보령]“코로나19 사태 이후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보령중앙시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급격히 줄자 그동안 전통시장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면 영업’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온라인에서 돌파구를 찾았다. 바로 최근 소비시장에서 주목받는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다. 김일환 보령중앙시장상인회장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소비자와 거래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고객이 외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 상인회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에 맞춰 멸치·김·젓갈·참기름·인삼·아나고 등 라이브커머스 회차별로 판매 제품을 차별화했다. 실시간 방송으로 소개하는 제품을 선별해 인터넷 포털과 SNS 온라인 쇼핑몰에 게시해 시장 점포별로 고른 수익이 돌아가도록 지원했다.

특히 유튜브 구독자와 시청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생중계 때 전국적인 사랑을 받는 ‘장구의 신’ 트로트 가수 박서진 씨를 섭외한 점도 효과적이었다.

비록 얼굴을 마주할 순 없었지만, 전통시장 특유의 따뜻하면서도 시끌벅적(?)한 소통과 교류의 장이 온라인에서 열렸다. 보령중앙시장 온라인 생중계는 매회 1500명 이상이 실시간 시청자로 참여했고 1000만 원을 넘는 평균 수익을 올렸다. 회별로 참여한 점포당 400~5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마냥 고객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가려는 노력이 매출 80~90% 상승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상인회가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거둔 것은 매출이 전부가 아녔다. 보령중앙시장은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 단골손님을 만들었다. 생중



보령중앙시장상인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보령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연다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

7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와

4월 머드테마파크 이목 집중

[보령]충남 보령시가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개통과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를 통해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연다.

시는 지난 3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2022 보령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는 선포에 보령방문의 해 홍보영상과 가요 ‘보령에 가자’를 상영하고 제작에 참여한 작곡가 정의송 씨와 배우 문희경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매머드급 행사를 기대를 모으는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31일 동안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보령머드축제와 대한민국 지속가

능발전대회, 2022한국농업경영인 전국 대회가 박람회 기간 중 열려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앞서 4월에는 스파·테라피 등 머드체험이 가능한 머드 테마파크가 대천해수욕장에 들어선다. 시는 보령해저터널 개통을 계기로 보령~태안 교차 관광상품을 개발 중이다. 아울러 시는 5개의 야간관광코스 ‘별자리길’을 활용한 관광상품과 미션

투어, 보령 여행 복리제 등 관광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대천해수욕장 상인 대상 미소 친절 교육을 마쳤고 보령방문의 해 범시민지원협의회도 출범했다. 또 릴레이 홍보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거리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보령시 제공



보령시는 올해를 보령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2000만 관광객을 맞을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보령머드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머드체험을 하는 모습

서산호수공원, 도심 속 생태공원 됐다

천연기념물 노랑부리저어새와 청둥오리·백로·물총새 서식 확인

[서산]충남 서산시 중앙호수공원이 도심 속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최근 호수공원에서 천연기념물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가 찾아와 겨울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2년 연속이다.

지난 1월 말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저어새 20여 마리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으며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왜가리, 물총새, 할미새, 백로, 방울새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러한 모습은 서산호수공원이 가진 생태성의 방증이기도 하다. 적정한 수위 조정도 한몫했다. 시는 2018년 하

반기부터 중앙호수공원 지하수 개발공사를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0년부터 기존 유입수보다 깨끗한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주마다 약 4t의 유용미

생물을 투입하는 등 토양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중앙호수공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도심 속 조화를 이루는 생태공원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산시 제공



서산호수공원에서 발견된 천연기념물 205-2호 노랑부리저어새



달콤한 향내 풍기며 봄 마중 나왔네

[태안]서해안의 숨은 보석 천리포수목원에 피어난 봄꽃들이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곳은 내륙보다 기온이 높아 봄꽃을 일찍 볼 수 있다. 꽃을 많이 피우는 히메말리스 등백나무도 붉게 피어나 수목원에 생기를 더하고 있다. 이밖에 매화, 중뿔나무, 버클랜드, 납매, 풍년화, 설강화 등 마스크를 뚫고 들어오는 짙은 꽃향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송희/콘티비충남방송

우리 삶을 바꾸는 ‘일·생활 균형’을 찾아

I 성인지 감수성 총전소

도민 일·가족·여가·성장 위해

기업·개인 성평등 허브기능인

일·생활균형센터 설치 시급

일·생활의 균형은 일·가정의 양립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과 생활의 균형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녀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일과 생활 속에서 다양성

을 존중받고, 일, 가족, 여가, 건강, 자기성장 등 생활 전반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일과 생활 균형’ 정책은 이처럼 넓은 관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의 줄임말.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부산(‘부산광역시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 전남(‘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 서울(‘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조례’), 서울 등이 조례를 제정해 ‘일·생활

균형센터’를 운영한다.

일·생활 균형센터는 기업과 개인의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또한 성별,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일과 가족, 삶과 휴식,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허브기능을 담당한다. 충남도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지원조례’가 시행됐다. 아쉬운 점은 일·생활 균형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 관련 조항이 빠진 것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과 생활의 균형 지수’ 자료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수준은 서울(62.0점), 부산(61.2점), 제주(57.6점), 전남(57.4점), 세종(55.9점) 순으로 낮아진다. 충남도는 8위로 54.4점이며 전국 평균(53.4점)보다 약간 높다. 도민의 삶을 바꿔 줄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 확대 방안으로 ‘충청남도 일·생활균형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송미영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순신 장군의 애틋한 아내 사랑

내포칼럼



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다른 장수들이 진중으로
아내를 몰래 데려오거나
첩살림 차리는 일 다반사

충무공은 정탐선을 통해 본가
형편과 아내의 건강 확인하고
편지로 부부간의 애환 나눠

‘부인 병환에 밤새 뒤척이고
점괘 확인한’ 기록 확인돼

명장 이순신의 사생활은 어떠했을까 궁금하다.

‘난중일기’에서 단서를 찾아보았다. 선조 26년(1593) 가을에 경이란 아이의 엄마가 등장한다. 그분은 이순신이 정읍 현감이었던 시절부터 장군의 첨이었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이순신은 경이 엄마에게 노자를 보내어 진중으로 오게 하였다. 한동안 그들은 함께 지냈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얼마 후 경이 엄마는 고향 부안으로 되돌아갔는데, 이순신은 ‘꿈에 아들을 얻었다. 경의 어미가 아들을 낳을 징조다.’(‘난중일기’, 선조 27년 9월 16일)라고 일기에 썼다.

이순신이 하필 부안댁을 부른 까닭은 무엇일까. 아산에 두고 온 아내 상주 방씨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어서였다. 방씨는 조상의 사당과 묘소를 돌보고,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느라 조금도 틈을 낼 수 없었다. 게다가 방씨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이순신은 여색을 멀리했다.” 훗날 대학자 백호 윤휴는 그렇게 평가했다. 한산도의 통제영이나 여수의 좌수영에서 이순신은 사실상 홀로 지내다시피 하였으므로 맞는 말이었다.

그때 다른 장수들은 진중으로 아내를 데려오거나 첨살림을 차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심지어는 전함에 몰래 연인을 태우고 다니다 발각되기도 하였다. 이순신의 사생활과는 거리가 있었다.

엄격한 도덕주의자들은 이순신의 사생활에도 결함이 많았다고 주장하는지도 모르겠다. 첨 부안댁이 진중을 방문하였고, 이순신이 공무상 여러 고을을 순행할 때 기생과 어울린 적도 있었다.

또 일각에서는 광주목사 최철경의 딸 최귀자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에서는 여

진이란 여성과도 심상치 않은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순신이 방탕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로 말하면 한밤중에 집에 편지를 쓰기도 했고, 며칠이 멀다 하고 ‘팀후선’(정탐선)을 통해서 아산 본가의 형편을 확인하였다. 장군은 고향에 두고 온 아내를 그렸으나, 7년에 걸친 기나긴 전쟁 중에 단 한 번도 아내와 회포를 풀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할 수 없이 장군 부부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애환을 함께 나누었다.

이순신의 한 가지 걱정은 아내의 건강이었다. ‘아들 울의 편지를 받아보니 아내의 병이 위중하다고 했다. 그래서 아들 회를 (아산으로) 내보냈다.’(‘난중일기’, 선조 27년 8월 27일) 그 무렵 이순신은 조정의 비판에 시달렸으나, 그 일보다는 아내의 병환에 더욱 마음을 썼다. ‘난중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보인다.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촛불을 밝힌 체 밤새 뒤척였다. 이를 아침 손을 씻고 조용히

앉아 아내의 병세를 점쳐보았다. ‘중이 환속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다시 점을 쳤더니, ‘의심이 풀려 기쁨을 얻은 것과 같다’는 괘가 나왔다. 아주 좋다! 또 병세가 나아질지 점쳤다. ‘유배지에서 친척을 만난 것과 같다’는 괘가 나왔다. 이 역시 오늘 중 좋은 소식이 들려온 조짐이었다.’(‘난중일기’, 선조 27년 9월 1일)

마침내 그 이튿날, 이순신은 팀후선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들었다. ‘아내의 병이 좀 나아졌다.’(‘난중일기’, 1593년 9월 2일)

아내의 건강 상태를 진중에서 조차 이처럼 소상히 알아보았다는 점만 보아도, 이순신이 아내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이순신 장군은 당대 제일의 애처였다!

소상공인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생생현장리포트



최영민

천안신문 기자

코로나 직격탄 맞은 소상공인
새벽5시 영업, 생존의 몸부림
평범한 삶·영업의 자유 절실해

미국의 흑인해방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1929~1968) 목사는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당시 미국 사회에서 편법받던 흑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됐다. 그는 이어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는 말을 통해 흑인들 역시 백

인들과 동등하게 미국 사회에서 살 아갈 존재임을 강조했다.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에게도 ‘꿈’이 있다. 바로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꿈. 소박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꿈이 바로 그것이다.

팬데믹 상황이 발생한 지 2년이다. 초창기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다. 이들이 원하는 건 나라의 빚으로 받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다. 예전처럼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말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했을 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냈다고 믿었던 모든 국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절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좀처럼 완화될 줄을 몰랐다.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겠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씩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천안의 대표적인 상점가인 두정동의 상인들은 새

벽 5시부터 영업을 하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한하고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은 많은 사람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한 상인은 이렇게 말한다. “한 가게가 도산하면, 가게 주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다. 점포의 크기에 따라 직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직원들의 생계 또한 문제가 생긴다. 그야말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남의 얘기가 아닌 내 가족, 내 친구의 피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꿈’이 있다. 그리고 그 꿈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닌 조그맣고 아주 당연한 것들이다. 내 이웃, 내 가족의 꿈이 될 수도 있는 이 꿈을 지켜주는 건 바로 우리 스스로다. 그들의 꿈, 아니 우리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본다. 그 꿈은 충분히 이를 수 있다. 당장 내 일이라도 말이다.

이정록 시인의 서랍

까짓것

첫 개업 기념 반값 미용실에 갔다가 시궁에 빠진 미운 오리 꼴이 되었다. 단골집에 가서 다시 다듬었다. 더 이상하다. 빌터리가 되었다. 까짓것, 빽빽머리 스님도 산다.

아이들이 나만 보면 특특 치고 지나간다. 나보다 낫다는 걸 확인하는 거다. 까짓것, 떡갈나무는 잎이 넓어서 바람도 크다.

태평양 범고래는 덩치가 커서 마음도 넓다.

우정으로 마음을 가꿔서 진한 사랑으로 돌아올 거다.

까짓것 취업이든 사랑이든 경력자 우대다.

난 어려서부터 심부름을 잘했다. 맘을 잘 보고 빵과 담배를 잘 사 나른다. 까짓것, 겨울이 오기 전에 살만 조금 빼면 산타가 되어서 굴뚝도 들락거릴 수 있을 거다.

선물 심부름은 산타가 최고니까 말이다.

쪽지 글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운다. 여동생도 운다. 냉장고도 운다.

까짓것, 이라고 말하려다가 설거지하고 헛기침 날리며 피시방으로 알바 간다.

까짓것, 돈은 내가 빈다.

까짓것, 가장을 해보기로 한다.

『까짓것』 창비

“강을 굽어본다. 강 건너 포플러나무 이파리가 반짝거린다. 저 강의 너비와 깊이를 만든 건 무자비한 흥수였을 것이다. 흉탕물이 덮쳤던 강바닥으로 흰 새가 난다. 강바닥이 깊을수록 커다란 흥수를 이겨낸 증거다. 삶의 가장 낮은 꼭짓점에 청춘이 있다. 톡 차고 올라 새의 날갯짓이 되자. 포플러나무의 푸른 춤이 되자.”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스무 살이 됩니다. 이십 대는 청춘의 뒷과, 자기 혁명에 대한 열정과, 끝까지 불잡아야 할 꿈 한 그루가 죽순같이 솟구칠 때입니다. 이제 지루한 수업은 끝났습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했다면 지긋지긋한 교과서를 집

어던져도 좋습니다. 이제 그대가 그대의 스승입니다. 놀기만 해도 크는 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찌할까요? 자신의 역할을 붙잡고, 자신에게 무릎을 끊어야 할 이십 대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라면 죽어도 좋을 역사의 서문이 펼쳐졌습니다. 그대가 있어 세상이 환해졌노라고, 누군가 펜을 들어 기록하겠지요. 정을 들어 석문(石文)을 새기겠지요. 벌써 무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반(道伴)과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이 언제나 거친 광야이기를 바랍니다.



이정록 시인

도민 궁지 담은 랜드마크 절실하다

정책에 민심을 더하다

파리 대표하는 에펠탑처럼

시각적인 조형물 설치하여

충남 궁지 국내외에 알려야

에펠탑은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인 상징건축물이지만, 제작을 시작할 당시 많은 난항이 있었다고 한다. 47명의 프랑스 문인들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에펠탑이 프랑스의 문화와 너무 이질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에펠탑은 이전까지 건물의 뼈대로만 숨겨져 사용했던 철골구조를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에 파리의 흉물이 될 것이며 외국인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제작에 필요한 정부지원금도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결국 20년 수익상환조건으로 1889년에 에펠탑을 완공하였으며, 그 결과는 현재의 명성이 보여주고 있는 바다.

에펠탑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충청남도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충청남도는 유관순 열사,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한용운 선생 등 독립투사와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최영, 성삼문, 김종서, 맹사성, 김정희, 장영실 등 수많은 문·무인들의 고향이다. 충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필자는 국내외의 전문가들과 만나면서 항상 충청의 궁지를 갖고 있다.

다만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시각적인 증거(조형물)가 없다는 점이 늘 아쉬웠다.

심리학에서 ‘연합(association)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마라톤이나 골프를 좋아하는 이유가 운동하는 배경의 풍광에 대한 매력이 운동 자체의 매력처럼 연합되어 느껴진다는 것이다. 연인과 고기를 먹으면 상대에 대한 매력보다는 단지 고기를 먹는 쾌감(진화론적인 이유)으로 인하여 좋아지지만, 우리의 뇌는 연인 때문으로 연합하여 착각한다는 뜻이다.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충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조형물이 만들자.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의 조형물을 보고 연합해서 우리 세대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

무령왕릉서 중국인이 제작한 벽돌 출토됐다

29호분 폐쇄 벽돌에 ‘조차시건업인야’

당대 제작자 ‘중국 남조’ 출신 확인

당시 활발했던 백제의 국제교류 입증

[공주]충남 공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 당시 제작자의 출신지가 기록된 명문 벽돌이 출토됐다.

공주시와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무령왕릉과 왕릉원 발굴조사를 통해 29호분 실체를 재확인한 뒤 무덤 입구 폐쇄에 사용한 벽돌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차시건업인야(造此是建業人也)’라는 제작자 출신지가 새겨진 벽돌을 확인했다.

반절 연화주문 벽돌의 측면에 새겨져 있는 이 명문의 내용은 ‘그것을 만든 이는 건업 사람이

다’로 해석된다.

이는 당시 대외교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29호분 벽돌에서 처음 확인된 명문은 기준에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 중요한 자료다.

‘건업인(建業人)’은 중국 남조의 남경 출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제작자가 외부인임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벽돌무덤의 축조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부여문화재연구소는 명문에 대한 3D 정밀분석 등을 통해 백제시대 서체 복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의 벽돌무덤인 무령왕릉과 6호분에서 글자가 새겨진 명문 벽돌이 출토된 바 있다.

/공주시 제공



무령왕릉 29호분에서 출토된 명문 벽돌. 제작자의 출신을 알 수 있는 문구(조차시건업인야)가 선명하게 적혀있다.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추사 서첩’ 구입

중년기 추사의 서법이 담겨 가치 높아

추사기념관 전시·연구 자료 활용 기대

[예산]충남 예산군은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 선생 선양과 전시·교육·연구자료에 활용하기 위해 ‘추사 서첩’을 구입했다.

추사서첩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을 모은 서첩으로, 나무로 된 표지에 ‘추사첩(秋史帖)’이라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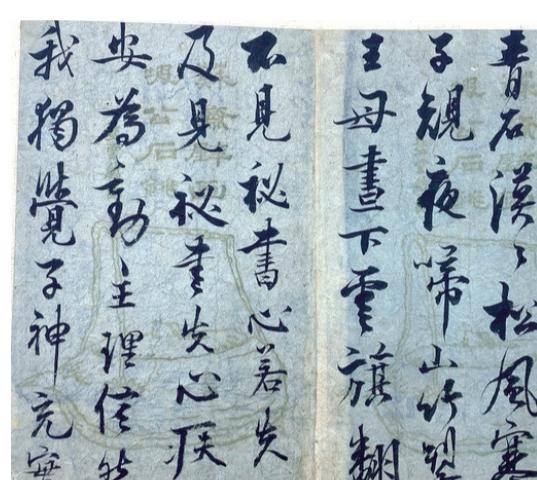
본문은 총 19장 가운데 3장은 푸른색의 시전

지 위에 글이 쓰여 있는 특징이다.

추사 서첩은 추사의 중년 시기 서법과 근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 가치가 매우 높게 알려져 있으며 추사고택은 매입한 유물에 대한 탈초(脫草) 및 번역을 진행해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사 김정희와 주변 인물 관련 유물을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며 “소장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 제공



예산군 관광시설사업소가 구입한 ‘추사서첩’ 본문. 추사의 중년 시기 서법과 근황을 보여준다.

올해 상해의거 90주년 맞아 윤봉길 의사 콘텐츠 보급나서

상해의거 90주년 기념콘텐츠 개발
캐릭터·웹툰·유튜브 영상 등 보급

[예산]충남 예산군이 상해의거 90주년인 올해 윤봉길 의사 관련 콘텐츠를 개발·보급에 나섰다.

군은 지난달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지원사업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지난해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로 추진한 사업으로, 윤 의사의 희생정신과 업적을 널

리 알릴 수 있는 캐릭터(사진)와 웹툰,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했다. 사업을 맡은 써밋디자인 박건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추진현황과 결과물 등을 발표했다.

캐릭터는 군청 공무원 272명이 투표해 채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며, 대한민국과학콘텐츠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박태욱 만화가가 웹툰에 참여했다. 유튜브에는 그림과 함께 대사를 읽어주는 ‘오디오웹툰’을 회차별로 게시해 접근성을 높였다.

캐릭터상품은 증강현실 앱과 연동할 수 있는

‘페이퍼시어터(종이공 예제품)’와 컬리링북을 개발해 덕산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윤 의사 캐릭터와 웹툰은 흥보 누리집(ybg1932.com)과 인스타그램(@yunbonggil_love)에서 볼 수 있다.



김수로/무한정보신문

가야산 원효봉에서 해골물 깨달음을 얻다

내포문화숲길, 마음으로 걷다

원효가 일체유심조 깨달은 1코스
오병계-가야산-수덕사까지 거닐며
곱씹어보는 진정한 행복의 의미

오늘 걸어갈 길은 오병계를 거쳐 가야산(원효봉)을 넘어 둔덕 저수지를 지나 수덕사에 다르는 내포문화숲길 중 원효깨달음길 1코스입니다. 이 코스는 산 구간으로 원효봉을 향해 오르막을 오를수록 숨이 헐떡거리고 다리가 풀리며 ‘내가 왜 왔을까?’ 후회만 생깁니다. 후회가 포기로 바뀔 때쯤 원효암터라는 표지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곧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표지석을 읽어보세요.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로 길을 떠날 때 밤이 늦어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다고 합니

다. 잠결에 해골에 곁 물을 마시고는 갈증을 풀게 됐는데, 날이 밝아오자 사실을 알고 이를 통해 원효대사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온갖 현상은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며, 모든 법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는데, 어찌 따로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당나라 유학길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유명한 원효대사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 글을 읽고 나면, 다른 후회가 생길 겁니다. ‘즐겁게 이 길이 걸어왔다면 행복했을 텐데…’라는.

배움에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자살률 1위 대한민국에서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현재를 살면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항상 불행과 함께합니다. 불행을 마주할 때마다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떠올려 보세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원효대



원효가 당나라 유학길에서 해골물로부터 깨달음을 얻은 원효암터

사의 깨달음은 종교를 넘어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이경복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센터장

충청인의 詩香

호박잎

박용래 시인의 산문

호박잎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었다

저녁 밤상 위 솜털 보송한

호박잎 줄기를 벗겨

사알 짹 익혀

된장에 밥을 싸 먹던 그 맛

세월이 그걸 잃어 버렸다

비가와도

호박잎 위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을 수 없다

오늘따라 호박잎에

밥을 싸서 먹고 싶다

지난 시간의 한 장면 속에

내가 갖혀 있다

그리움이다

추억이다

그래서 그 호박잎이 그립다



김명수 시인

·현대시학추천 시집 질경이꽃 외
·충남문학대상, 대전시인상, 웅진문학상



이미정갤러리, 제6회 ‘봄빛채움’ 展

3월 8일까지 도자기 등 수공예품 전시

[공주]충남 공주 이미정 갤러리는 제6회 생활공예전 시회 ‘봄빛채움’ 전을 오는 3월 8일까지 개최한다.

6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전시는 갤러리와 대중들

간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기획전시회로, 공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가들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11명의 수공예들이 참여해 손으로 만든 공예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봄빛채움’ 전에는 도자기, 페브릭, 옻칠, 손뜨개, 목공예, 쥬얼리, 프랑스자수, 꽃차 등 다양한 장르 공예가들의 작품과 상품을 선보인다.

이미정 관장은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들은 따스한 기운을 품고 있어 눈 내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시회를 감상하면서 희망의 에너지를 온몸에 담아가기를 바라며, 향기롭고 따스한 한잔의 꽃차와 함께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봄빛으로 가득 채우는 의미 있는 전시회에 초대한다”고 말했다.

김광섭/특급뉴스



충남도정 더 행복한 충남
도민을 위한 도정을 있다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안내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결혼이주여성의 벗, 사회적기업 '사람'

결혼이주여성에게 기술 가르쳐
모든 수익 월급·기부로 나눔

[당진]2009년 설립 이후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치고, 봉제 품을 생산하는 '사람'은 당진시 1호 사회적기업이다.

당진 최초 여성 이장이자 당진시의 원으로 활동했던 편명희 대표는 결혼이주 여성들이 경제력을 확보하고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나도록 돋기 위해 사람을 설립했다.

그녀는 결혼이주 여성에게 기술을 가르쳤고, 공공기관 납품용 청소 마대, 현수막, 마스크, 수세미 등을 제작했다. 고정적 월급을 받게 된 이주민들은 생활과 큰 도움을 받았다.

'사람'은 발생한 수익 대부분을



당진 1호 사회적기업 '사람'을 설립해 결혼이주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활동을 돋는 편명희 대표

직원 월급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기부한다.

편 대표는 "사회적기업 종사자 대부분은 취약계층인 만큼 복지의 관점에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며 "일반 기업에 취업하기 어려운 노인,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이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아/당진신문

홍주발효식품, 참발효어워즈 대상 선정됐다

상실·청태·쥐눈이콩 된장 등
풍미 깊은 옛 먹거리 개발

[홍성]로컬푸드를 활용해 전통장을 만드는 홍주발효식품이 '참발효어워즈 2022'에서 조선간장과 상실장으로 2개 부문 대상을 거머쥐었다.

홍주발효식품은 잊혀가는 소중한 우리 먹거리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곳으로 상수리를 이용한 상실장을 비롯해 깊은 풍미를 가진 청태장, 토종 예팥을 이용한 팥장, 쥐눈이콩 된장 등 옛 것을 되찾고 건강한 먹거리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홍주발효식품은 지난해 더덕도라지장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올렸다.

이경자 홍주발효식품 대표는 "우리의 전통 팔장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전세계인이 찾는 발효음식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참발효어워즈'는 우수 발효식품을 발굴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자 슬로푸드문화원에서 개최하는 국내 유일 발효식품 전문 시상식이다. 올해 간장·된장·고추장·막걸리·치즈 총 23 점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수상 제품과 업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유통 소매점 입점과 수상 제품 특별 기획전 초대, 홍보 콘텐츠 제작, 매체 홍보 등 특전을 1년간 지원한다. /홍성군 제공



우리 먹거리의 맥을 이어가는 홍주발효식품 이경자 대표

홍성군 휠체어펜싱 국내 최강 재확인

권효경·김건완·김동훈·조영래 등
올해 국가대표 8명 중 4명 선발

[홍성]충남 홍성군이 다시 한번 국내 휠체어펜싱 최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홍성군에 따르면 2022년 휠체어펜싱 국가대표 선수 선발 결과 총 8명 중 4명이 홍성군 선수가 선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선수들은 올해 말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해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3회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홍성군 소속 선수가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홍성군은 전통적으로 휠체어펜싱에 강세를 보였다. 2020년 7월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출범하면서 성장세를 보였

고 지난해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권효경

김건완



김동훈

조영래

에서 홍성군 휠체어펜싱 선수들이 충남도 최초 6관왕 달성을 비롯해 금9, 은8, 동7 개의 메달을 휩쓸며 전국 최고의 실력을 과시한 바 있다.

/홍성군 제공

한국미협 천안지부장에 변영환 회백 선출

"회원들을 위한 미협 만들겠다"

[천안]이른바 '전(錢) 작가'로 잘 알려진 변영환 회백이 한국미술협회 신임 천안지부장으로 선출됐다.

천안 출신인 변영환 신임 지부장은 그동안 '돈'을 소재로 한 작품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구속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세태와 헛된 욕망을 풍자했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변 지부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그동

안 많이 쌓여있던 천안미협 내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출마를 했고,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천안미협을 새롭게 바꾸고 회원님들을 위한 미협으로 만들라는 특명을 받게 됐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변 신임지부장은 동국대학교 미대와 단국대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2003년 유럽 순회 퍼포먼스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개인전과 퍼포먼스를 통해 예술 활동을 펼쳐왔다.

조인옥/천안신문



"우린 다 괜찮은 사람이야"

홍미경 수필집 '뭐, 어때'

"존재 자체로 존중 받아야"



[논산]작은 출판기념회가 논산 시내 작은 공간에서 열렸다. 독립서점 '어쩌다 산책'에 삼삼오오 8명이 모였다. 주인공은 첫 수필집 '뭐, 어때'를 펴낸 홍미경(사진) 작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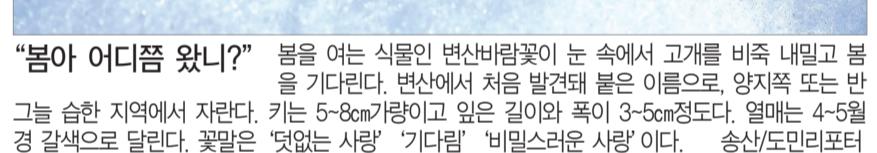
"책을 통해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글로 그 사람의 은밀한 세계를 엿보다 보면 '모두에게 얼마쯤은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뉴스에 등장하거나 인플루언서가 되지는 못해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어때."

장절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그림들이 한 페이지씩 전면을 차지하고 표지 사진 그림은 책을 조금 넘기

다 보니 눈에 확 들어온다. "노란 꽃을 원순 마디가 굽을 정도로 힘을 들여 쥐고 있는 어린 소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당당함 자체였다. 그림으로 읊기면서 '누구나 그 자체로 존중받는 세상'을 향한 바람도 같이 담았다." 이 소녀는 '무엇이 되지 않아도'라는 제목 앞에서 강렬하다.

우리의 일상어 "좀 모자란다 해도, 어때"에 다름 아닌 경쾌한 수다다.

전영주/놀뫼신문



"봄아 어디쯤 왔니?" 봄을 여는 식물인 변산바람꽃이 눈 속에서 고개를 비죽 내밀고 봄을 기다린다. 변산에서 처음 발견돼 붙은 이름으로, 양지쪽 또는 반그늘 습한 지역에서 자란다. 키는 5~8cm가량이고 잎은 길이와 폭이 3~5cm정도다. 열매는 4~5월 경 갈색으로 달린다. 꽃말은 '덧없는 사랑' '기다림' '비밀스러운 사랑'이다. 송산/도민리포터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사서들의 서재



〈박태웅/한빛비즈/2021〉

국 그룹으로 지위를 변경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된 것일까? 이 책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답하고 있다. 또한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

저자는 선진국의 조건을 얘기 한다. 신뢰 자본 이야기가 인상적이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은 한국 인들이 커피숍에 자리를 맡는다고 노트북이나 지갑, 가방을 옮겨놓은 채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회적 신뢰 자본은 핵심 가치로서 작동할 것이다.

저자는 그러면서 고장 난 한국 사회를 이야기한다. 저자는 'AI 시대의 교육은 논리적 사고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내는 상상력, 예외를 처리하는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모든 사안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 저자는 세계적 위상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위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다.

/신재자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주무관

제334회 임시회 의원 주요 활동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강화 촉구



도의회는 ‘감염병 대응 지방 공공의료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지역 양성 의료인력이 그 지역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도록 공공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양성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의원은 “충남도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전국 평균 1.8명)에 그쳐 의료공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대도시 의료인력 집중 현상 개선을 위해 지방 의료인력 양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충남 서부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충남혁신도시 내포신도시에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히”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해야



도의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 방한일 의원(예산1)은 “충남은 대전에 있는 ‘대전세종충남본부’가 관할한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충청권에서 자동차 등록대수가 가장 많음에도 충남 도민의 자동차 관련 민원 해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일선기관을 설치·운영할 때 고객 수요와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형·교통 중심의 광역 단위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요를 파악해 충남 본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사도광산 세계유산등재 중단 촉구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 발의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결사항대 결의안’이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등재 해석전략 마련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노동 역사와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을 삭제했고, 당사국인 한국을 대화상대에서 배제하는 등 유네스코의 권고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사국이 제안한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등재 목록에서 삭제한다는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항구적 평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도의회는 이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남북 간 교류도 진전이 없었으며, 정부와 충남도가 계획했던 남북교류 협력사업들도 미진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정착은 대화를 통해 진행돼야 하며, 남북은 항구적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남북한 정부는 4·27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국회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저터널방식 ‘제2서해대교’ 건설 촉구



도의회는 ‘국도 77호선 제2서해대교(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이 건의안은 하루 평균 8만 9000대의 차량 통행으로 정체가 발생하고,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전면 통제되는 서해대교 우회 대체 도로로 ‘당진~화성 해저터널’ 건설을 요구한다.

홍 의원은 “낙뢰로 인한 교량 케이블 화재, 다중 추돌사고로 인한 전면 통제와 태풍 발생으로 인해 차량 통행 속도를 50km/h 이하로 제한한 적이 있다”며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저터널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김영권 의원(아산1)은 ‘충청남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인구감소·고령화·소규모 중소농 가 증가로 지역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도입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 찬성 56.8%, 반대 29.2%, 잘모름이 14%로 지역·나이·성별을 막론하고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지역 주민의 고령화율, 빙근율이 높고 인구소멸 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해 향후 도내 전면 시행, 국가 시책화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 지급해야



이영우 의원(보령2)은 “노인회 읍면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에 대한 활동비를 도에서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천안시 등 8개 시·군만 노인회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시·군마다 지원 금액도 다르다”며 “도에서 형평성이 맞춰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인구수 20%가 넘는 초고령 지역으로 노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시·군별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 활동비가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내포 지중 송전선로 안전 대책 촉구



이종화 의원(홍성2)은 “내포에서 건설 중인 지중 송전선로 공사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지중 송전선로의 낮은 매설깊이 때문에 발생할 전자파로 불안해한다. 유치원, 학교가 가까워 불안이 가중된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자기장 수치가 많게는 10.4mG(밀리가우스)에서 적게는 5.1mG로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 관련 부서, 업체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격거리 확보나 완충구역 설정 등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천 갯벌 활용한 생태엑스포 제안



전익현 의원(서천1)은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를 제안했다.

전 의원은 “각종 생태자원이 풍부해 세계관광기구가 선정한 세계 8대 생태관광지로 뽑히는 서천 갯벌을 활용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과 생태체험, 세계적인 생태계 보존 교육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계룡세계문화엑스포와 보령 양마드박람회 개최 이후 관광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서천 갯벌생태엑스포는 충남관광 성장세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족휴양·체험관광을 추진한다면 충남관광의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한영신 의원(천안2)은 녹색어머니회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처벌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노란 벌자국 설치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포인트마킹 설치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인원이 배치돼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안전 물품, 홍보용품 구입지원 정도”라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보다 활성화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친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힘쓴다



김한태 의원(보령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친환경기업 실천 계획 수립 ▲생산·유통 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지도 ▲교육훈련 및 홍보 ▲소비 및 수출 촉진 등을 명시했다. 특히 학생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급식용 식재료 공급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환생제·항균제 등 화학 자제를 자제하고 최소화해 생태계를 유지·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중장기적으로 친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형 특화거리 조성 나선다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특화거리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 종합관리계획 수립 ▲특화거리 지정·신청 절차·지원·사업평가 ▲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정체성 형성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재생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형 역사·문화거리, 대학로, 음식·패션거리 등을 조성해 지역 상징성을 강화하고 발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원도시를 新도시 정책 패러다임으로”

김대영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지역개발 패러다임 전환 강조

이어티 대표는 “과거의 대공원 같은 놀이동산에서만 만날 수 있던 개발시대의 정원 문화가 이제는 올레길, 난지도가 변화한 하늘공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의원은 “삭막한 현대사회와 지역경제 성장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정원도시를 생각해 왔다”며 “지역 어디서나 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도시 성장의 잣대는 이제 개발이 아닌 살기 좋은 환경의 구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룡에도 캐나다 밴쿠버의 ‘부차드 가든’ 같은 대표 정원이 필요하다”며 “계룡의 정원도시 정책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말 임수흠 공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특위는 임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주의료원의 현실적인 운영 방향과 현안 해결 방안 등을 질의하며 경영·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위원들은 재정 건전성 문제, 의료인력 부족, 이용자·직원 만족도 미흡 등을 지적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지역민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경영 합리성을 충족하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고, 조직·경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우수하고 성실한 인재가 임명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전 검증 했다”고 설명했다.

4대강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해야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서천2)이 ‘국가하구 생태복원 대선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됐다.

금강특위 등 전국 317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국회의는 지난 7일 전남 나주시청에서 출범식을 갖고 국가하구 대선 국정과제 채택 촉구안을 각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전국회의는 촉구안을 통해 ▲국가하구 해수유통 국가과제 시행 ▲기수역 구간 취·양수장 이전 ▲국가하구 생태복원 특별법 제정 ▲유역별 국립통합물관리센터 건립을 촉구했다. 양금봉 공동의장은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 생태복원을 이행하도록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말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 정원도시를 꿈꾸다’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의 요청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신구대 환경조경과 김인호 교수는 정원과 도시의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파리의 ‘15분 도시’, 싱가폴의 ‘파크커넥트’ 등 사례를 들며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우리나라로 정원도시가 아닌 정원국가로의 발돋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공원 원장을 역임한 안이영노 안녕소사

제33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신재생 에너지산업·기초과학 육성 주문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열린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차세대 신성장동력 사업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주문했다.

이선영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등 첨단 산업지구가 최대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체계적 계획과 근거에 따라 추진해 달라”며 “첫 입주기관인 과학기술진흥원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직의 안정화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은 “수년째 지적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한 지역이 많으며, 사용 가구에 대한 배관 및 호스, 가스누

출경보기 등 개선사업을 연차별이 아닌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충남이 세계에서 수소 산업을 선도하고 미래차 핵심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서간 수소차, 전기차 업무를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고 조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도내 기초과학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에 대비해 너무 미미하다”며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해 예산을 과감히 늘려 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최근에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안전 및 품질, 공정관리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며 “전문가와 협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충남도, 선도적인 저출산 정책 수행해야

복지환경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월 19일 저출산보건복지실, 4대 의료원(천안·공주·서산·홍성), 충남 사회서비스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 “재공모에 관심 있는 여러 곳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문했다. 또한 홍성의료원 관련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게 되는데 대상별 감면대상자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올해 홍성의료원 내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는 만큼 홍성뿐만 아니라 보령, 서천 등 인근 시·군에 있는 산모가 기존 원거리 출산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 산부인과에 뒤지지 않는 출산과 사후조리가 원스톱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전국적으로 인구 자연 감소가 진행 중이며 충남 또한 4개의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자연감소가 진행중”이라며 “저출산 정책 분야의 선도적인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도내의 산모도우미 처우가 기관별로 천차만별이며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모도우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집행부에서 실태 파악 및 지원대책을 강구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의료원 입원환자의 보호자가 감염병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에 힘쓰고, 격리공간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역업체 도급률 향상 주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건설교통국과 종합건설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당부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저조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개선을 위해 “사업 설계시 지역생물물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일 발생 한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 사고와 관련, 도내 사업장의 동절기 일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라고 독려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도민 재난 안전 구호 등을 위해 건축설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등 금산소방서 신축사업의 올해 안착공을 주문했다.

전의현 의원(서천1)은 충남형 탄소중립 공공 건축물 건립 시 사업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

되도록 해줄 것과 조세정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운영해 과태료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종합건설사업소의 수의계약 사업을 현재 1000만 원에서 상향시켜 지역 건설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공공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어려운 지역업체 개선을 위해 건설 자재비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충남도 건설사업 수의계약 기준금액의 재검토와 함께 중대재해법 시행과 관련해 예산 확보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도민 건강 쟁겨야

행정문화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스포츠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두 단체가 체육대회 추진 시기가 동일하지 않다. 같은 해에 동일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추진하게 되면 기 구축된 시설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의원(홍성2)은 “도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새로운 형태의 스포츠를 발굴·보급하는데 더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내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자 등 사전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해 스포츠 4 대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도 “충남의 경우 기대수명은 81.5세인 반면, 건강수명은 65.6세로 낮다”면서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도내 장애인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강도의 장점을 살린 충남형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 유형과 중증 정도에 맞는 체력측정 및 프로그램 보급 확산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도 대표선수 훈련 여건 개선 및 기업과 연계한 장애인체육선수 고용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적극적인 우수선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마련 및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을 주문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농어민수당 ‘가구별 지급’에서 ‘개별 지급’ 변경을 위한 조속한 시군 협의를 통해 적기에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업인력 부족 해소 방안을 농업인 복지 차원으로 접근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생활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3년은 청년후계농들이 농촌에 정착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라며 “청년후계농이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기간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농업인력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예로 들며 “시·군 수요조사만 보지 말고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등을 방문해 농업인들에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기서 의원(부여2)은 “유통·가공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다”며 “충남 통합 판매, 유통 시스템 구축 및 광역 먹거리 센터 등 정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미비하다”며 농촌의 고령 농업인을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농업 기자재 가격이 작년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센터 확대해야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정책 제안을 통해 올해 충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김은나 부위원장(천안8)은 “방역에 사용되는 약품 성분을 철저하게 조사해, 학생 건강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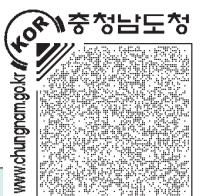
김석곤 의원(금산1)은 “가능하면 많은 시·군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거점 센터를 설치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수 의원(서천2)은 “학교 기간제 근로자들이 고용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있다”며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통학 여건 개선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교육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

다”며 “방과 후 학교와 문화·예술 활동 등에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일선 학교에서 ‘고교 학점제 우선 도입에 대한 입장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학교 정착과 학생 중심의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학한! 충남형 알뜰 교통카드

당신의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겠습니다.

충남형 교통복지가 확대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무료버스를 도입,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도 무료 버스제를 시행합니다. 미래의 주역들이 '어디든 맘껏 누리라'는 응원입니다. 충남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집콕 생활에 안타까운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더불어 충남도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으로 수도권 전철 및 타 시도 버스와의 환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카드 소유자는 수도권 전철(천안버스는 별도 3월 시행) 및 타 시·도 버스와 충남 버스 간 사후 환급 방식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는 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발급 가능하며,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3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정신문팀



환승할때 돈 버는 알뜰한 카드 출시



▣ 충남형 광역알뜰교통카드란?

충남 버스와 수도권 전철, 인접 5개 시·도와 대전 도시철도 간 환승 교통비 환급이 가능하도록 충청남도 맞춤형으로 도입한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충남과 당은 어디든 환승!



예우를 담은 어르신 무료버스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을 통해 시행되는 충청남도의 고령화 정책입니다.

▣ 적용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75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충남 소속의 시내·농어촌버스에 한하여 무료이용
- 버스 이용시 "행복 충남" 카드인식 음성 표출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천안·아산시의 경우 기존 무료환승카드 사용 가능

▣ 문의처

충남콜센터 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맘껏 누리라를 응원하는 ☆ 어린이·청소년 무료버스(4월 시행)

충남 어린이와 청소년 26만명 대상

142,682명



118,108명
어린이
(만6~12세)

청소년 1인당 연간 35만 6천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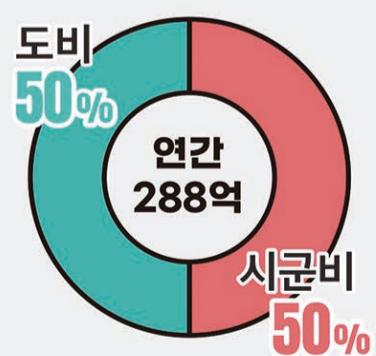
버스 이용 연평균 횟수 302회
1,180원
 $302 \times 1,180 = 356,360$
→ 1인당 연간 35만 원
절약하는 효과

충남형 교통카드를 통한 환급제 방식

'충남형 교통카드'를 이용해 먼저 버스비를 지불한 뒤, 1일 3회 이용분에 한해 환급받는 방식



예산 편성



교통비 부담 절감



교통혼잡 해소



에너지·환경비 축소